

제4차 세계물포럼 추진 및 참여

Promo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4th World Water Forum

박지선*, 홍일표**, 박용운***

Ji Seon Park, Il Pyo Hong, Yong Woon Park

ABSTRACT

Recently human beings face serious water crisis, namely water management at the critical moment because of rapid increasing in population, subordinate part of a national budget, water pollution by domestic use and industrial use or waste, agricultural water use by intensive market farming, excessive development and extraction of water sources, and etc. We become to recognize that water and sanitation is the one of most important part which is threatening us with a drain on the water resources and death around the world and then are making opportunities of discussion for water policies and solutions of water problems through international network such as Global Water Partnership(GWP), World Water council(WWC). World Water Forum(WWF), as one of main water-related activities, aims at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 among various stakeholders for accomplishing a holistic water resources management by making common thoughts regarding the necessity of integration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related with water management, problems and issues. Also the unity of each local area for the holistic approach focuses on showing present local actions and actively supporting them, and suggesting new ideas. Wi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4th WWF this year, Korean government should have consistency in it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water resources policies as a more active and future-oriented member of international water network. Finally it will be necessary that we will set up an organization and system which does publicity activities about results of various local actions of Korea around the world through next WWF in the future and contribute to solving global water problems.

핵심용어 : 세계물포럼(WWF), 세계물위원회(WWC), 수자원네트워크

1. 서 론

2000년 9월, '빈곤 타파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제의 세부항목들로 채택된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는 지속가능한 환경 복원 및 보전에 관한 내용을 국가의 정책 및 종합계획에 통합시켜 훼손된 환경자원을 복구하고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최소한의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인류의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물은 우리가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풍부자원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현대 사회는 물 부족과 오염,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재해, 기아, 전염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매우 심각한 물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세계물위원회는 전 인류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1997년부터 세계물포럼을 주관하기 시작하였고 매 3년마다 세계물의날인 3월 22일에 맞추어 개최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연구원.연론학석사E-mail : matildap@kict.re.kr - 발표자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수석연구원.공학박사E-mail : iphong@kict.re.kr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연구원.공학석사E-mail : ywpark@kict.re.kr

하고 있다. 세계물포럼은 전 세계에서 참여한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지닌 국제 물 전문가, 정치가, 관료, 언론인 그리고 민간 대표들을 한자리에 집결시켰고 국가 경제와 환경 및 사회적 차원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물 관리 총체적 접근법을 개발하는 지침을 만들고 있다. 또한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권고사항이나 다른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물에 대한 관심도와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에 대한 관심과 활동방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4차 세계물포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적극적인 물 활동을 펼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세계물포럼의 추진 및 참여를 위해 진행된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사회에서 수자원 네트워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4차 세계물포럼

2.1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 준비과정

제4차 세계물포럼은 2006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고 전 지구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펼치고 소개하며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Local Actions for a Global Challenge”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멕시코의 Vincent Fox Quesada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을 통해 “물은 모든 정부가 보장해야만 하는 공공자산”임을 강조하고 물이용의 전 지구적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물위원회는 제4차 세계물포럼이 성공적인 수자원정책 결정에 있어 주요 요소이며 지역정보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 세계의 지역 활동을 지원함에 목표를 두어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해내는 것에 기본원칙을 두었다.

준비과정의 주목적은 각 지역 활동가들의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포럼의 주제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었다. 따라서 2004년 하반기부터 제4차 세계물포럼 기간 이전까지 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역의회를 설립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세계 각 지역별 지역 워크숍(Local Workshop)과 지역 회의(Local Meetings)를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 지역이 당면한 특정 수자원 이슈에 대한 지역에서의 활동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워크숍으로부터 얻은 지식과 경험은 지역 회의에서의 토론에 기여를 하였으며 지역 워크숍은 포럼의 주제에 따라 각 지역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구성되었고 각 워크숍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을 취합해 다른 지역과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지역 또는 세계 수자원 관련 당국에 의해 주최되는 정기적인 회의에서 조언을 구하고, 주제의 조정자들과 세션 주관자를 선정하고, 토픽 세션에서 다루어질 지역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지역별 이해당사자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역프로젝트는 준비과정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지역현황보고서(Regional Position Paper)를 만들기 위한 지역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수 이해당사자들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준비과정 기간 동안 각료급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캠페인을 펼쳐 수자원 문제와 제4차 세계물포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켰다. 지역 단위로 구성된 이 준비과정은 세계물위원회와 함께 세계의 많은 지역 혹은 국제기구들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수자원정책 결정에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2.2 제4차 세계물포럼의 구성

제4차 세계물포럼은 토픽 세션(Topic Session),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가상포럼(Virtual Forum), 세계물엑스포(Water Expo), 물 축제(Water Fair)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활동한 세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토픽 세션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역 프로젝트 발표, 전문

가 패널 토론 및 세션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당면한 특정 수자원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활동들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5가지 대주제인 수자원과 개발(Water for Growth and Development),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Implementing of IWRM), 위생과 물 공급 (Water Supply and Sanitation for All), 식량과 환경을 위한 수자원관리(Water Management for Food and Environment), 위기관리(Risk Management)로 크게 구분되어 각국의 수자원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5가지 대주제에 대해 5가지 주제별 관심사항을 두어 보다 구체적인 지역적 문제 접근을 가능케 하였다. 지역 수자원 재정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델(New Models for the Financing Local Water Initiatives), 제도적 발전과 정치적 절차(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Political Process), 역량 확립과 사회적 학습(Capacity building and Social Learning), 과학, 기술, 지식의 응용(Applic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Knowledge), 목표 설정, 모니터링과 실행평가(Targeting,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Accessment)로 주제별로 구분하여 총 25가지 분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료 회의는 제4차 세계물포럼의 협의사항에 대해 분명한 영향력을 지니고 세계적으로 진행된 지역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각료급의 참여는 준비과정과 지역회의에서 각 나라의 장관이나 정부 인사들이 함께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식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3월 21일과 22일에 개최된 각료회의 및 원탁회의에서는 지역 물 공급과 위생관리에 대한 재정조달,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지방분권화, 거버넌스, 이해당사자 참여 강화, 효율적인 물 사용과 기술 이전, 국가 수자원 모니터링개발, 수자원과 환경 등 6개 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마지막으로 세계물엑스포는 참여 국가나 기관, 국제기구를 비롯한 시민단체, 기업의 홍보와 계몽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홍보부스를 임대하여 자신들의 서비스, 제품 또는 작업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였다.

3. 제4차 세계물포럼에 대한 한국의 추진과정 및 참여

우리나라의 제4차 세계물포럼 참여는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세션을 준비하고 주관하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 2005년 5월부터 한중일 3국이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동주관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수자원 분야의 세 가지 주요 이슈인 수자원정보화, 홍수관리, 하천복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물엑스포에서는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기상청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홍보부스를 통해 수량, 농업용수, 수질, 기상예보 분야별로 한국의 수자원정보화를 홍보하였다.

3월 20일 일본 주관의 아시아 몬순 지역의 하천복원(River Restoration in Asia Monsoon Region) 세션을 기점으로 3월 21일 한국 주관의 수자원정보화(Water Resources Information System) 세션, 중국 주관의 홍수관리(Flood Management) 세션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가 주관한 세션에서 건설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수자원정보화 시스템”, 환경부는 “수질환경정보 시스템의 역량과 미래”, 농림부는 “농업용수 자원정보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하였으며 일본과 중국, 유럽의 전문가가 초청되어 일본은 “일본의 하천관리 정보화”, 중국은 “중국의 수자원정보시스템”, 유럽에서는 “유럽수자원기구(Water Framework Directive)의 활동을 지원하는 웹 기반 수자원 정보시스템”에 관하여 심도 있는 발표를 하였다. 세션 결과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수자원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합된 수자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고 수자원정보시스템은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정책결정자에게 효율적이며, 국제적으로 공유되고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에서는 3월 20일 식량과 환경을 위한 수자원관리 방안 중 하나인 하천복원을 주제로 세션을 주관하였으며 아시아 몬순지역을 대상으로 잦은 홍수 재해, 높은 인구밀도, 넓은 논 면적 등 독특한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기술과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국제협력력을 통해 하천복원 성공사례와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적합한 하천복원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3월 21일 우리나라의 수자원정보화시스템에 연이어 수자원의 위기라 할 수 있는 홍수관리를 주제로 세션을 주관하여 홍수문제도 다른 자연재해와 같이 세계적인 문제로 공유되어야 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새로운 홍수관리체계가 필요하고 홍수방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학계, 국민이 모두 참여하고 국제협력력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3국 공동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지역 워크숍 및 지역 회의를 통해 지역의 다양성이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애가 아니라 해결책 제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다양한 물 관리 역사와 문화, 정책들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국제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물포럼’을 발족하였다.

한국도 물 문제에 대응할 영향력 있는 대표적인 민간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에서 물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건의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조직으로 2005년 10월 한국물포럼(Korea Water Forum, KWF)을 설립하였다. 설립 전 ‘한국물포럼 준비위원회’의 이름으로 제4차 세계물포럼을 위한 동북아 지역 대표로 선임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역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주관조직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서는 상기 조직이 동북아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세계가 당면한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대로써 자리매김하여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번 제4차 세계물포럼은 과거 세계물포럼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식과 비교할 때 분명 일보 진전된 것이었다. 관계부처 연합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과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한국 민간위원회의 준비과정 및 활동은 국제사회 수자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고자 노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 관련 국제행사의 참여가 국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정책 수립 및 일관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선진국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방향을 연구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조직 및 통합관리시스템의 생성이 필요하다. 세계물포럼과 같은 행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수자원정책의 동향과 정보 수집을 통한 향후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의 대안 제시를 위한 Think Tank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향후 전 세계적 차원의 물 분쟁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합의 도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B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지역 간,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주제별, 그룹별 역할 분담을 통한 보고서 작성, 한국의 물 현안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에 치중하고 정기적으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내외 물 인식 제고 및 홍보에 힘써야 하겠으며 이런 노력이 미래에 닥쳐올 물 위기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기회 창출과 정부, 지역사회, 시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우선적인 인프라로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과 법규 등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방분권화, 지방의 체계적인 행정처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같은 성공적인 지역 프로세스의 요건들은 수자원정책 수립에 있어 기본일 것이다.

또한 향후 세계물포럼 등 수자원 관련 국제행사를 위시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자원 분야의 발전과 연계 되려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장을 구축하여 역량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미래에 닥쳐올 여러 가지 물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발판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The Secretariat of the 3rd World Water Forum and World Water Council (2003). **Analysis of the 3rd World Water Forum**, France.
2. The Secretariat of the 4th World Water Forum (2005). **Second Announcement**, Mexico.
3. The Secretariat of the 4th World Water Forum (2005). **Preparatory Process**, Mexico.
4. National Water Commission, Mexico and World Water Council (2006). **Official Delegate Publication for the 4th World Water Forum Mexico City**, Faircount Ltd.
5. The Secretariat of the 4th World Water Forum (2006). **Regional Document of Asia-Pacific**, Mexico.
6.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2003). **제3차 세계물포럼 자료집**, 예찬문화사.